



[산업동향] 싱가포르, 세계 첫 세포배양 우유 개발 성공

- 줄기세포 추출 및 증식 후 젖 분비 유선세포를 생성해 우유 생산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젖소 없이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우유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벤처기업 TurtleTree Labs는 젖소나 다른 착유동물 없이 실험실에서 우유와 유성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갓 짜낸 우유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이를 증식시켜 젖을 분비하는 유선세포를 생성한 후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우유는 식물성 우유와 달리 젖소의 우유와 매우 유사한 영양성분은 물론 동일한 풍미와 질감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낙농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동물학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 업체는 지난해 175,000여 기업이 참가한 세계 기업가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여 상금 50만달러(약 5억 5천만원)를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세포배양 우유는 실험실의 세포증식 규제와 이를 통해 생산된 식품의 영양 성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포배양 우유를 비롯한 식품의 안전 보장 및 생산 방법 최적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출처 : foodtank.com, 2월 17일 >

[낙농경영] 美, 낙농업계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최대 2,7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북동부 낙농혁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지역 유제품 소비와 긍정적인 인식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젖소, 면양 및 산양으로 우유를 생산 및 가공하는 낙농가와 유업체는 물론 낙농관련 협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조금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무부(USDA)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 최소 1만 달러(약 1,107만원)부터 최대 2만 5천달러(약 2,767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또는 협회는 농촌 관광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 인건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홍보 책자나 물품을 제공받게 되며, 중간 및 최종 보고를 거쳐 내년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낙농체험목장은 북동부 지역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동제한 및 거리두기로 인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미 코로나19 이후 많은 농가에서 화상 또는 동영상 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화상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wcax.com, 2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